

EU, 중국산 섬유제품 반덤핑 조사

남유럽 산업단체, EC에 섬유 8개 항목 덤핑조사 요청 준비작업

유럽연합(EU)은 중국산 가죽신발과 컬러TV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섬유·의류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자지 China Daily가 5월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오신위(曹新宇)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 부회장은 “남부 유럽국가 중심의 산업단체들이 중국산 섬유제품 8개 항목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를 유럽위원회(EC)에 요청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 산업단체들은 “중국산 남성용 셔츠와 면직타월, 양말, 내의 등의 수출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덤핑여부 조사 요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분기 중국의 EU 섬유·의류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20% 가량 증가함에 따라 의류와 신발류 등 패션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이태리 등 남부 유럽국가들이 중국산 저가제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는 섬유·의류 수출기업에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을 공지하는 한편 향후 추가 정보와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은 2005년 하반기 WTO 회원국의 전체 반덤핑조사 가운데 40%가 넘는 33차례 조사를 받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조사를 받은 국가로 나타났다. (베이징=연합뉴스 표민찬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12>